

## 예술과 사회 4: 수용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

㉮ 박유준

얼마 전, 한 권의 책을 홍보하는 목업 이미지를 보자마자 흘린 듯 서점으로 달려갔다<sup>[1]</sup>.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라는 고백에 대한 오렌지 주스 폭포<sup>1</sup>를 그린 표지는 아침드라마의 광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1] 남선우 (2022). <아무튼, 아침드라마>. 파주: 위고. © 위고

저자가 들으면 머쓱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침드라마를 본 경험이 없다. 아침드라마를 생각하면 ‘막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외도는 기본이고 방화나 살인에 이르는 중범죄가 아침드라마에선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한 특효약이기 때문이라도 이 장르에 대한 평가는 차디차다.

아침드라마에 대한 냉소적 평가는 ‘형성적 접근(shaping approach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형성적 접근은 예술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예술사회학 연구의 한 갈래인데, 많은 경우 “사회에 대한 예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명한다.”<sup>2</sup> 이러한 태도로 문화 텍스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순수예술이 정서의 고양에 도움을 주는 반면(uptifting effects), 대중문화는 통속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비판한다. 아침드라마의 성격을 막장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플롯의 반복이 사람들에게 피로를 안겨준다고 말하며, 심지어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평은 예술에 대한 형성적 접근의 고발장이다.

고발장은 이내 몇 가지 반론에 직면한다. 문화 텍스트가 사람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발현되는가를

1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2012-2013)의 한 장면이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jxncMQ4zPiU>

2 Alexander, V. D. (2003). *Sociology of the arts: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최섯별·한준·김은하 (역) (2010).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 파주: 살림, 104.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고발장의 전면애 (순수예술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깔려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형성 이론을 바탕으로 둔 비평이 대중을 ‘문화적 바보’로 평가절하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sup>3</sup> 형성 이론의 신봉자들은 예술이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드라마는 불륜이나 사기, 살인 같은 범죄를 익히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문화 다이아몬드 모형<sup>4</sup>의 오른쪽에 서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술이 만드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예술 창조자가 아닌 수용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sup>5</sup> 빅토리아 D. 알렉산더(Victoria D. Alexander)는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믿음을 보이는 예술사회학적 접근의 예로 영국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성과를 설명한다.

영국 문화연구의 초석을 쌓은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문화 텍스트의 약호화·해독(encoding/decoding) 과정을 분석했다.<sup>6</sup> 홀에 따르면 예술 창작자는 텍스트에 의미—선호된 의미(preferred meaning)를 ‘약호화’하는데, 이때 수용자는 창작자가 부여한 선호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독’한다. 요컨대 문화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 자체에 담겨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텍스트가 만나는 순간에 ‘생성’되는 것이다.”<sup>7</sup>

홀의 모델은 데이비드 몰리(David Morley)가 수행한 연구<sup>8</sup>의 바탕이 되었다. 그는 영국의 시사 프로그램 <네이션와이드(Nationwide)>를 다양한 집단의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은행 매니저와 젊은 견습생은 모두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의도한 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지배 체계모니적(dominant-hegemonic)’ 입장의 해독을

---

3 ibid., 115-125.

4 다음을 참고하라. 박유준 (2021.5.7). 예술과 사회 2: 예술과 사회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Ma(king) Co(nnection)>, 2021년 4월호, 62-66. URL: [https://maco.page/i1\\_detail.php?idx=31](https://maco.page/i1_detail.php?idx=31)

5 Alexander, V. D., 최셋별·한준·김은하 (역) (2010). op. cit., 347.

6 Hall, S. (1973). *Encoding and decoding of the television discourse*.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Hall, S. (1980). Encoding/decoding. In Hobson, D., Lowe, A., & Willis, P. (Ed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7 김수정 (2010). 수용자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수용자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열린 논쟁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1), 2-46. esp. 6.

8 Morley, D.(1980). *The 'nationwide' audience*. London: BFI.

수행했다. 은행 매니저가 지배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일정한 지위에 올라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는 계급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위치한 젊은 견습생이 은행 매니저와 같은 입장에서 무비판적인 해독을 구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몰리는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지배 헤게모니를 학습했기 때문에 대안적 시각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은 흔히 ‘계급’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몰리는 계급이 아닌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문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존 피스크(John Fiske)는 수용자의 능동성에 대한 믿음을 누구보다도 드러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질문한다. 대중문화가 일반 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엘리트 계층의 생산물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일까? 정말 대중이 ‘문화적 꼭두각시(cultural dope)’라서? 피스크가 내린 답은 백인, 자본가, 가부장 질서 같은 문화 헤게모니 세력이 행사하는 기호학적인 권력(semiotic power)에 대중이 기호학적으로 저항(semiotic resistance)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sup>9</sup> 사람들이 대중문화 텍스트에 열광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시하는 바에 조종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대중들은 “돈을 쓰는 사이에서도” 텍스트의 의미를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활용한다.<sup>10</sup> 이것이 바로 피스크가 말하는 ‘저항’이며, 이는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진보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된다.<sup>11</sup>

1990년대 이후 수용자 연구는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마주한다. 실증주의 기반 사회학 연구자들은 문화 텍스트의 의미와 그것의 수용이라는 다소 주관적 주제가 사회학의 연구 소재로 효용이 있는지, 설령 이를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지 질문했다.<sup>12</sup>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문화 텍스트의 제작 및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처한 위치에 있다. 능동적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창작자와 텍스트 그리고 수용자의 관계를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질문이 생긴다.

9 Fiske, J. (1989). *Reading the popular*. New York: Routledge.

10 Alexander, V. D., 최섯별·한준·김은하 (역) (2010). op. cit., 360.

11 Fiske, J. (1989). op. cit., 11.

12 Alexander, V. D., 최섯별·한준·김은하 (역) (2010). op. cit., 375-376.

애초에 수용자가 창작자(텍스트)와 동등한 입장에 선 적이 있었던가? 수용자의 능동성은 창작자와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허락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건 아닐까?⑩